



로타리와 보건

로타리는 인류의 보건/건강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활용한다.

소아마비 박멸:

- 1985 년,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박멸하기 위해 시작한 폴리오플러스는 로타리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.
- 1988 년, 로타리는 세계보건기구 (WHO), 국제로타리,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(CDC) 그리고 유니세프(UNICEF)와 손을 잡고 전세계 소아마비 박멸 캠페인인 ‘글로벌 소아마비 박멸 이니셔티브’를 펼쳐오고 있다. 이것은 전례 없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으로, 발병율이 99%까지 줄어들었다.
- 2009 년, 로타리는 빌 &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미화 3 억 5,500 만 달러의 챌린지 기부금을 기부 받았으며, 앞으로 3 년 동안 이에 상응하기 위한 기금, 미화 2 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하였다. 빌 게이츠 재단의 챌린지 보조금은 게이츠 재단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보조금/지원금 중 최고 액수 가운데 하나로서, 이는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로타리의 목표 지향적인 기업체와의 파트너십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.
- 로타리는 전세계 20 억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화 8 억 달러의 재원과 수많은 자원봉사를 제공해왔다. 소아마비 박멸에 대한 로타리의 의지는 민간단체가 관여한 공중보건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.

로타리클럽들은 폴리오플러스 뿐 아니라, 의료 봉사, 의료기구 제공, HIV/AIDS 예방 및 치료, 말라리아 퇴치 등 다양한 보건 프로젝트들을 실시하고 있다.

다른 보건 프로젝트의 사례:

- 출산 시의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독일, 오스트리아, 나이지리아 로타리클럽들은 총 120 만 달러를 지원, 나이지리아, 카누 및 카두나 지역에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가능토록 하였다. 이 프로젝트는 500 만 명의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산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, 산전산후 건강 증진 및 사산아 출생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.
- 인도, 코임바토르 갈럭시 로타리클럽은 인도 정부, Nehru Yura Kendra 청소년 및 체육부와 공동으로 에이즈 인식 캠페인을 위한 대학생들의 10Km 행진을 주최하였다. 이 대회에 대학생 3,000 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사람들이 많은 모인 시장과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.
- 이탈리아, 나르도 로타리클럽은 이탈리아와 아이티 국가의 로타리클럽 및 다른 재단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이티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제 1 단계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. 동 클럽은 1 만 5,000 도스의 말라리아 예방약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,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티 재단과 협력하여, 로타리와 지역사회 사이에 좋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.